

초공본풀이 - 저승 삼시왕 유래담

신연우

외할아버지 천하 임정국 대감은 자식이 없다는 사실에 못견뎌하셨다고 한다. 논밭과 재물이 많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남녀노비까지 많이 두고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가난뱅이처럼 허전하였다고 한다.

외할아버지가 신 살이 가까웠던 어느 날 동네 어른들과 장기 바둑을 두던 날이었다. 내기 바둑을 두어 이겼는데 상대방이 농담처럼 한 마디를 던졌다.

“아이도 없으면서 돈을 따다가 무엇에 쓰렵니까?”

이 말은 외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돌아오는 길에 까옥까옥 까마귀 소리도 새끼를 까서 기르는 소리 같았다. 풀이 죽어 먼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길에 난데없이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쫓아서 가보니 거적문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다. 그 안을 살펴보니 거지 부부가 아기를 앞에 놓고 재물을 보며 집이 떠나가게 웃고 있었다. 그 거지가 외할아버지를 보고는 자식도 없는 임정국 대감이 여기는 왜 왔느냐고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살 의욕을 모두 잃었다. 집에 돌아와 사랑방 문을 잠그고 드러누웠다. 하인인 느진덕이 정하님이 저녁상을 들이려 하니 문이 퐁퐁 잠겨 있었다.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외할머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여보시오, 우리도 오늘 웃을 일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를 따라가니 은단마개로 막은 서단병의 목을 참실로 묶어서 아기처럼 꾸며놓고 유기장판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곤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웃음은 아니 나오고 울음만 더 크게 나올 뿐이었다.

이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느진덕정하님을 불러서 나가보게 하였다. 시주 받으러 온 스님이 있었다.

“어느 절 대사이십니까?”

“황금산 도단 땅 주자대사님의 부처를 모시는 중입니다. 당도 낡고 절도 헐어 무너져 시주를 받아다 낡은 당 헌 절을 수리하여, 명 없는 자손에게는 명을 주고 복 없는 자손에게는 복을 주자고, 시주 받으러 내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스님을 안으로 들이고 시주 쌀을 내왔다. 중이 말했다.

“높이 들어 낮게 시르르 비우십시오. 쌀이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명도 떨어지고 복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시주를 받은 중이 아래로 내려가려 하자 외할아버지가 불러 세웠다.

“우리 부부간 오십 원이 다 되어도 남녀간의 자식이 없으니 원천강 사주팔자나 가려 보아주시오.”

“그렇게 하지요” 하고 스님은 주역책을 내어놓고 말한다.

“우리 당이 영험하고 수덕이 좋으니, 송낙지 구만장, 가사지 구만장, 상백미 일천석, 중백미 일천석, 하백미 일천석, 은 만량, 금 만량 백근 근량 채워놓고, 우리 당에 와서 석달 열흘 백일만 원불수륙재를 드리시면 남녀간에 자식이 있을 듯 합니다.”

그날부터 임정국대감님은 송낙지 가사지 상백미 중백미 하백미 은금 백근근량을 채워놓고 검

은 솟소를 타고 황금산 도단땅으로 소곡소곡 올라간다. 황금산 도단땅 천년동이 만년동이 네 눈이 반동개, 양반이 오면 일어나 드러쿵쿵 내쿵쿵 짓고 하인이 오면 누운채로 쿵쿵 짓는 네 눈이반동개가 드러쿵쿵 내쿵쿵 짓으니 대사님이 소서중에게 묻는다.

“속하니야, 저만큼 나가 보아라. 어디 양반이 오는게냐?”

“예 천하 임정국대감님이 우리 절에 원불수록 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셔라.”

그 날부터 손발톱 머리 깎고 소금 반찬에 밥 먹으며 불전에 헌신하여, 대사는 목탁 치고 소사는 바라 치고 속하니는 복을 쳐서 아침엔 아침수록 낮에는 낮수록 저녁에는 저녁수록 하루 세 번 씩 연 석달 열흘 백일을 드렸다.

“백일 째에 백근 근량을 달아보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대추나무 까마귀 주둥이 저울로 달아보니, 백근이 못 차 한근이 부족하여 아흔아홉근이 되었다.

“임정국 대감님아, 백근이 찾으면 아들자식이 났을텐데, 백근이 못 차니 여자식을 주시니, 내려가서 좋은 날을 받아 천상배필을 맺으십시오.”

합궁일을 받은 것이 칠월칠석 날이었다. 부모님에게서 흰 피 검은 피를 모아서 아홉 열달 다 채워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쁜 딸이었다. 앞이마에 햇님이 뒷이마에 달님이 양 어깨엔 샛별이 오송송이 박힌듯한 아기씨가 태어나니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초사할 초이레 백일 잔치를 지나, 외할머니가 말한다.

“대감님아 대감님아, 이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리까?”

외할아버지 임정국대감이

“느진덕이정하님아, 마당을 나서 저 산을 바라보아라. 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산 저 산 줄줄마다 산천초목이 구시월 단풍이 지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저 산 줄이 뻗고 이 산 줄이 뻗어 왕대월석 금하늘 노가단풍 자지명왕 아기씨로 이름 짓기 어떠하냐?”

“그럼 그렇게 하소서.”

한두 살에 어머니 무릎에서 놀고 두세 살에 아버지 무릎에서 놀다 다섯 여섯 지나 십오 세 되는 해에 하늘 옥황에서 분부가 내려왔다.

“임정국 대감은 천하공사 살러 오라. 김진국 부인님은 지하공사 살러 내려오라.”

이러자 부부간에 앉아 근심하기를

“이 아이를 어찌하여 두고 가면 좋을까? 사내자식이면 책실로나 데려가지. 여자식이니 어찌하냐?”

하였다. 업어가도 못하고 데려가도 못하여, 일흔여덟 비계살장 마흔여덟 고무살장을 지어놓고 15세 어머니를 그 안에 가두고는 느진덕이정하님을 불러서,

“우리가 공사 살고 올 때까지 구멍으로 밥을 주고 옷을 주며 아기씨를 키워주면. 우리가 돌아와 종문서를 돌려주마.”

“그리 하겠습니다.”

열 다섯 살 어머니는 한없이 울었고 부모님은 떠났다. 살장 안에서 구멍으로 밥을 받아먹고 옷을 받아 입으며 그 안에서 살았다.

이러던 중 어느날 황금산 도단땅에서 삼천 선비가 글공부를 하다가 말을 하기를

“아, 저 달이 곱기도 곱다. 하지만 주년국 땅의 노가단풍자지명왕 아기씨 얼굴보다야 더 고우리야.”

하니 큰스님이

“삼천 선비 가운데 노가단풍자지명왕 아기씨에게서 시주를 받아오는 자가 있으면 삼천 선비한테서 돈 삼천 냥을 모아 주마.”

하였다. 주자선생이

“제가 가오리다.”

하였다. 주자선생은 중의 행장을 차려 입고 주년국 땅 임정국 대감 집으로 내려갔다. 그 집에 이르니 느진덕이정하님이 나와 연유를 물었다.

“우리 법당에 와 원불수록 드려 탄생한 아기씨가 열다섯 십오세 원명이 부족한 듯하니 시주 받아 수록 드려 명을 이으려고 하여 시주 받으러 왔습니다.”

느진덕이정하님이 시주 쌀을 내 오자 주자선생은 아기씨 원명을 잇는 것이니 아기씨가 직접 시주를 내야 한다고 했다. 느진덕이정하님은 아기씨 부모님이 천하공사 지하공사 살러가고 아기씨는 비계살장 고무살장 안에 가두고 마흔여덟 자물쇠로 잠가놓고 갔다고 말해주었다. 주자선생은 내가 문을 열어주면 아기씨가 직접 시주하겠느냐고 물어달라고 했고, 그렇다는 답을 얻었다. 주자선생은 가져간 천양낙화금정옥술발(요령)을 세 번을 치니 마흔 여덟 자물통쇠가 절로 열렸다.

어머니는 하늘이 불까 청너울을 둘러쓰고 땅이 불까 흑너울을 둘러쓰고 나왔다. 어머니가 시주쌀을 붓는데 주자선생은 한쪽 손은 전대 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 상가마를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쓰다듬었다. 어머니는 엄마쭈똥 놀라서 욕을 했다.

“괘씸한 중이로구나!”

“아기씨 상전님아,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석달 열흘만 지나면 나를 찾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여겨진 어머니는 느진덕이정하님을 시켜서 증거물을 받아놓게 했다. 느진덕이정하님은 가는 중을 붙잡아서 고깔 귀도 한 조각, 장삼 귀도 한 조각 끊어다가 말판돌 밑에 묻어두었다.

한달 두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몸이 전과 같지 않은 걸 느꼈다. 밥에는 밥내 물에서는 뺄내 국에서는 국내 장에서는 칼내가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노래처럼 한탄했다.

“먹고저라 새콤새콤 연다래도 먹고저라. 달콤달콤 오미자도 먹고저라.”

느진덕이정하님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오미자를 따려 했으나 나무가 너무 높았다. 느진덕이정하님은 하늘님에게 빌었다.

“명천같은 하늘님아! 홀연 광풍이나 한 번 불어줍서, 오미자 연다래가 떨어지면 방울방울 주워다 아기씨를 먹여 살리리다.”

문득 홀연 바람이 불어 높은 나무 열매가 방울방울 떨어지니 주워다가 어머니를 드렸지만 하나 둘 먹으니 풀내가 나서 못 먹었다. 어머니는 점점 죽을 것처럼 되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느진덕이정하님은 벼슬살러 가 있는 큰상전에게 편지했다.

‘아기씨가 죽을 지경에 당했으니 어서 바빠 돌아옵서.’

이 편지를 받은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일 년에 마칠 일 한 달에 마치고 한 달에 마칠 일 하루에 마쳐 열린 집으로 돌아와 마흔 여덟 자물쇠를 열고 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딸의 배가 큰 독같이 불어 있었다.

어머니는 먼저 외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병풍 뒤로 해서 다가갔

다.

“왜 병풍 뒤로 오느냐?”

“아버님도 남자라 병풍 뒤에서 현신 드립니다.”

“그래. 무슨 일고 눈이 흘기산이 되어 짓물렀느냐?”

“아버님이 어느 때나 오시나 살장 구멍으로 하도 바라보며 찬바람을 맞아서 그리 되었습니
다.”

“코는 어찌 말뚱코가 되었느냐?”

“아버님이 보고파 하도 울다보니 콧물이 내려와 하도 닦아놓으니 말뚱코가 되었습니다.”

“배는 어찌 두롱배가 되었느냐?”

“느진덕이정하님이 되로 밥을 세끼씩 주어놓으니 식충이가 되어 두롱배가 되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인사드려라.”

외할머니는 딸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어찌 두롱배가 되었느냐? 필유꼭질 이상하다. 나도 해 본 일이다.”

하고 어머니 옷가슴을 풀어보니 젖머리가 검어지고 일흔여덟 젖줄이 쏘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떡하면 좋아. 양반의 집에 사달이 났구나. 궁 안에 바람이 들었구나.1)”

외할머니는 은대야에 물을 떠 은젓가락 두 가락을 걸쳐놓고 딸을 앉혀 바라보았다. 딸의 배
안에 아들 삼형제가 소랑소랑 앉아 있는 것이 비쳤다.

이 일을 숨겨둘 수가 없어서 외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분노한 외할아버지는

“작두를 걸어라, 망나니를 불러와라.”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어머니를 죽이려 하니 느진덕이정하님이 달려들어

“날 죽여 줘서.”

하고 몸부림 치고, 느진덕이정하님을 죽이려 하면 어머니가 달려들어

“나를 죽여주세요.”

하니

“야아, 이거 할 수가 없구나. 딸자식 죽이려 하니 다섯 목숨을 다 죽이게 생겼구나. 부모 눈
밖에 났으니 둘 다 집을 나가거라.”

어머니와 느진덕이정하님은 옥 같은 얼굴에 염주 같은 눈물을 연신 흘리며 작별인사를 했다.

“아버님도 잘 계십시오. 전생 팔자 좋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잘 계십시오.”

눅던 방도 하직하고 나가려 할 때 외할아버지는 검은 암소를 내어주며

“입던 의복 신고 가라.”

또, 자식 앞의 부모 마음이라 금부채를 내어주며

“너희들 앞길이 막힐 때 금부채로 다리를 삼아 넘어가라.”

하였다.

검은 암소, 느진덕정하님, 어머니 이렇게 암컷이 먼 문 밖을 나고 가니 나갈 길이 어디였을
지. 해 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나갔다. 느진덕정하님이 앞에 서고 어머니는 뒤에 서서 갔다.
북해산도 넘어가고 남해산도 넘어갔다. 어령떠령 가다보니 칼썸다리2)가 있다.

“느진덕정하님아, 무슨 일로 칼썸다리가 있는 거냐?”

“상전님아, 부모님이 우릴 죽이려 할 때 칼을 세워 죽이려 했기에 칼썸다리가 있습니다.”

1) 처녀가 임신했다는 제주 속담

2) 제주도 심방이 굿하면서 점 칠 때, 신칼을 던져서 칼날이 위를 향해 세워지면 이를 ‘칼썸다리’라고 한
다.

칼썌다리 넘어가니 애산다리가 있었다.

“느진덕정하님아, 무슨 일로 애산다리가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내 놓을 때 애달픈 마음이 드니 애산다리가 되었습니다.”

애산다리 넘어가니 등진다리³⁾가 있다.

“이건 어떤 다리일러나?”

“부모 자식 이별해서 등을 지고 나오니 등진다리가 되었습니다.”

등진다리 넘어가니 옴은다리가 있다.

“이건 어떤 다리냐?”

“부모 자식 이별할 때 자식 앞의 마음이라 옴은 마음 먹고 금부채를 내어주니 옴은다리가 됩니다.”

옴은다리 넘어가니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있구나.

“이건 어떤 일로 위로 흐르는 물이 있는거냐?”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집을 나가니 거스른 물(거슬러 흐르는 물)이 됩니다. 상전님아, 상전님아. 이리로 오시오. 우리 저 산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 쏘이고 상전님 머리카락 올리십시오.⁴⁾”

“그래 그리 하자.”

높은 오름 위로 올라가 세 가닥 머리 여섯 가닥으로 갈라 딸아 머리 올려 건지(땀머리)를 하니, 지금 대정읍에 가면 건지오름이 있다.

“상전님아, 조심조심이 지나소서.”

그 때 나온 법으로 대정고을에 가면 조심다리가 있다.

조심다리를 지나가니 청수 바다가 가까워 금부채로 다릴 놓아 청수 바다 지나가고 흑수 바다가 가까우니 금부채로 다리 놓아 흑수 바다 지나가니 수삼천리 길이 앞에 놓였다. 금부채로 다리를 놓을 수 없어서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다가 무정눈에 잠이 들게 되었다. 꿈 속에선지 흰강아지 한 마리가 꿈지에 물을 적셔 어머니 얼굴을 쓸어내렸다. 얼굴이 선뜩선뜩하여 깜짝 잠을 깨니 흰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너는 어떤 짐승이냐?”

“상전님아, 나를 모릅니까? 상전님이 임정국 땅에 살 때 나를 사랑하여 지내다가, 병들어 죽어 바다 용왕에게 가 용왕국 거북사자가 되었습니다. 내 등에 올라 타세요. 수삼천리 길을 넘겨드리리다.”

가다 보니 어느 절 문 밖에 닿으니 느진덕정하님이 말하되,

“상전님아, 저 절 문 앞을 보세요. 귀 없는 송낙이 걸리고 귀 한 쪽 없는 장삼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통기하니 주자선생이 나와서

“본매본짱(증거물)을 내놓으라.”

송낙 귀 장삼 귀를 맞추어보니 똑 들어맞았다.

“나를 찾아 온 인간이 분명하구나. 나를 찾아 온 인간이거든 찰벼 두 동이를 손톱으로 까 올리면 나를 찾아 온 인간이 분명하다.”

찰벼 두 동이를 머리에 이어 와 절 앞에 앉아서 손톱으로 까자 하니 손톱이 아파 못 까고 발톱으로 까자 해도 발톱이 아파 못까서 비새같이 울다보니 무정눈에 잠이 들었다. 잠이 든 새에 천왕새가 모여들고 지왕새 인왕새가 다 모여들어 오조조조 찰벼 두 동이를 입으로 다 까놓

3) 심방이 신칼을 두 개 던져 점을 칠 때 칼등이 서로 마주 향한 모양을 말한다. 배반한 다리라는 뜻.

4) ‘머리 올린다’는 말은 혼인의 표지로 사용됨.

았다.

무정눈에 잠 들었어도 새소리에 번쩍 깨어나

“이 새 저 새, 휘어이 저 새!”

하고 쫓으니 포로롱 날아갈 때 앞날개로 찰벼 겨를 다 바람 불리며 날아가니 차 나락 두 동이가 다 까져 있었다.

법당 안에 이고 가니

“날 찾아 온 인간이 적실하지만, 중이라는 것은 부부가 되어 사는 법이 없으니, 불도땅으로 길을 내어줄테니 불도땅에 들어가라.”

그 길로 불도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신 구월 초여드레가 가까우니 어머니가 산기가 있었다.

“아야 배야 아야 배야!”

하는데 큰 아들 태어나자 하는데 어머니 아래문으로 나가자 하되 아버님이 아니 본 길이라 하여 어머니 오른쪽 겨드랑이를 긁어뜯어 태어났다. 열 여드레 근당하니 둘째 아들이 나고자 하되, 아버님이 못 본 금이요 형님도 아니 나온 길이라 하여 왼쪽 겨드랑이를 뜯고 나왔다. 스무 여드레가 되어 막내인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삼형제 태어나려니 어머니 가슴인들 얼마나 답답하리야 하고 어머니 애달픈 가슴을 긁어뜯어 태어났다. 태어난지 초사흘에 목욕상잔을 내어놓고 목욕을 시키니 그것이 어머니가 내어준 상잔이 되었다.⁵⁾

아기구덕 차려놓고 “초여드레 본맹두도 원이자랑, 열여드레 신맹두도 원이자랑, 스무여드레 살아살축 삼맹두도 원이자랑. 자는 것은 글읽는 소리요 노는 것은 활 소리라 ……” 자장가를 부르며 아이들을 재웠다.

한 두 살이 지나고 다섯 여섯 살 되었다. 남의 자식들은 설날이 가까우면 좋은 의복 입고 우레같이 놀건만, 우리 삼형제는 더덕더덕 두껍게 누빈 바지 저고리를 입고 골목길로 나가면 남의 집 아이들이 우리 삼형제를 보고,

“아비 없는 호로 자식!”

하고 구박을 하니 비새같이 울면서

“어머님아, 어머님아,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있는 델 가르쳐 주세요.”

“너희 삼형제 크고 나면 아버지를 찾아볼 수 있을 거다.”

여덟살 나던 해에 남의 자식들은 삼천서당에 글공부를 하러 가건마는 우리 삼형제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고 있었다. 하루는 서당으로 들어가 선생님께 사정하여, 큰형은 삼천선비 벼룩물 놓기로 하고, 작은형은 선생 방에 재떨이를 비우고 방안 치우기를 하고, 나는 선생님 뉘는 방의 굴묵지기(아궁이 불 때는 사람)로 들어가, 우리 맡은 일을 다 하면 아궁이 어귀에 모여앉아 손바닥으로 재를 평평하게 골라놓고 하늘 천(天) 따 지(地)를 쓰며 공부했다. 아궁이 앞에서 재를 놓고 공부하니 삼천선비가 별명을 붙여 우리를 ‘잿부기 삼형제’라고 불렀다. 삼형제는 뛰어나게 잘 했다. 글도 장원 되게 잘 했고 활쏘기도 장원 되게 잘 했다.

우리 삼형제가 열다섯 살 나는 해에 삼천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다. 우리는 옷도 없고 노잣돈도 없어서 어머니 앞에서 울다가 삼천선비 집꾼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잿부기 삼형제가 방울땀을 흘려가며 삼천선비의 집을 지고 따라가다가 몸이 지쳐 떨어지면 “어서 걸어라, 빨리 걸어라. 왜 떨어지느냐.” 하며 발길질을 해댔다. 염주같은 눈물로 다리를 놓으며 가다 보니 삼천선비가 공논하되,

“잿부기 삼형제 떼놓고 가야지. 이놈들 데리고 갔다가는 우리들 과거 낙방할테니 무슨 피를

5) 상잔은 늦으로 만든 작은 그릇이다. 무당이 점칠 때 쓴다.

내서라도 떼놓고 가자.”

이런 공론을 하고 삼형제에게 말했다.

“너희들 노자도 없는 것 같으니, 배나무배좌수 덕에 가서 저 배 삼천알을 따 오면 우리가 먹고 돈 삼천냥을 모아 줄 테니, 어떠냐?”

“그렇게 합시다.”

배나무배좌수 집의 배나무 위로 콩무늬를 받치며 삼형제를 올려놓고 배 삼천알을 따는 동안에 삼천선비는 서울로 올라가버렸다. 삼형제는 배 삼천알을 따서 바짓가랑이에 담아놓고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해서 배나무 위에서 비새같이 울었다.

배좌수가 꿈을 꾸는데 배나무 위에 청룡 황룡이 꿈틀꿈틀 얹혀있는 듯 해서, 배좌수가 나와서 배나무 위를 바라보니 무지력 총각 셋이 올라 앉아 있었다. 배좌수가 말했다.

“어서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 바지 대님을 풀어 아래로 떨어뜨려두고 내려오라.”

삼형제가 배를 떨어뜨리고

“우리 삼형제 목숨은 마지막이로구나. 설운 어머니도 이별이로구나.”

벌벌 떨어 배나무 아래로 내려오니, 배좌수는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이 아이들 삼형제 과거 붙을 아이로다.”

하고 저녁밥을 차려놓고 삼형제를 잘 먹이고, 돈 열 냇을 썩 꺼내주며

“어서 가서 과거 보아라. 종이 가게 가면 종이 내어줄 것이고, 먹 가게 가면 먹을 내어줄 것이다.”

삼형제가 반겨하며 서울 시험장으로 올라가니 동서남북 문이 다 잠겨있었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울었더니 연추문 바깥에 팔죽 팔던 할머니가

“어떤 일로 울고 있나?” 물으니,

“우리도 과거 보러 오는데 삼천선비와 같이 못 와서, 동서문을 다 닫아버렸으니, 참가할 수가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답안지를 쓰면, 우리 집 딸아이가 삼천선비 벼룩물지기가 되었으니, 벼룩물 길러 오면 과거장으로 들이게 하리다.”

삼형제가 허우덩썩 환하게 웃으며 붓전에 가서 붓 사고 먹전에 가서 먹 사고 벼룩전에 가서 벼룩을 사 왔다. 붓에 먹을 적서 발가락에 끼고서 큰형은 ‘천지혼합’, 작은형은 ‘천지개벽’, 나는 ‘삼경개문’ 답을 써서 팔죽할머니 딸을 주었다. 그녀는 삼천선비 벼룩물을 놓다가, 글 쓴 종이에 돌을 달아 묶어서 상시관 가슴으로 던졌다. 상시관이 뭉크린 종이를 펴 보고 무릎 아래에 두었다.

삼천선비가 과거 답안지를 올리니 낙방이 되었다. 상시관이 잣부기 삼형제 답안지를 내어놓고

“이것이 누구의 답안지냐?”

부르고 외쳐도 어느 선비도 나서지 않았다. 연추문을 열고 밖을 보니 팽나무 아래 삼형제가 자고 있었다. 삼형제는 펴뜩 깨어나보니, 장원급제가 되어 있었다. 큰형은 장원급제, 작은형은 문선급제, 나는 팔도도장원이 되었다. 누빈 바지를 벗어두고 관복을 입었더니 일월(日月)이 뛰노는 듯하였다.

“이만하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반갑고 기뻐하시랴!”

하고 있을 때, 삼천선비는 상시관에게 가서,

“중의 아들 삼형제는 과거를 주고 삼천선비는 왜 낙방을 시킵니까?”

“어찌 중의 자식인줄 알겠느냐?”

“도임상을 차려 주어 보십시오. 알 도리가 있습니다.”

도임상을 차려주니 술과 고기 안주는 먹는 체 하며 상 아래로 내려놓으니, 잣부기 삼형제는 과거 낙방이 되었다.

삼형제가 관복을 벗어놓고 입었던 누비바지를 둘러입고 땅을 치며 팔을 비틀어가며 대성통곡을 하다보니, 다시 상시관에서 영이 나기를,

“삼천선비 가운데서 활로 연추문을 맞추는 자가 있으면 과거 합격을 주겠다.”

삼천선비가 활을 쏘되 맞히는 자가 없었다. 큰형이 화살 한 대를 쏘니 연추문이 요동하고 작은형이 쏘니 연추문이 열리고 내가 쏘니 연추문이 절로 덜컥 자빠졌다.

"하늘이 내린 과거로다, 합격증서 내어주라. 청일산도 내어주라 흑일산도 내어주라. 별연 독교 쌍가마 어사화 비사화 삼만관속 육방하인 관노 기생 춤 잘 추는 저 광대 줄 잘 타는 저 사령 내어주라."

비비둥둥 비비두둥 악기를 울리며 고향으로 내려온다.

이럴 때 삼천선비는 먼저 느진덕정하님에게로 와서,

"너의 상전 삼형제 과거 본 것 낙방된 걸로 하게 하면 너의 종 문서를 돌려주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가단풍아기씨 우리 어머니는 삼천선비가 물명주 전대로 목을 걸어 삼천천제석궁 깊은 궁에 가두었다. 그리고 느진덕정하님은 머리를 풀고 짚으로 묶어서 아이고 데이고 울어가며 우리 삼형제 앞으로 나아와서는,

"상전님들아, 어머니는 죽어서 앞에 출병(가묘)을 했는데 과거 하면 뭣합니까?"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머니는 죽어 세상을 버렸는데 과걸 하면 무엇하리. 삼만관속 육방하인 관노 기생 다 돌아가라."

행전 벗어 두건 쓰고 아이고 데이고 울어가며 어머니 출병한 데 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헛봉분이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하겠구나. 어머니를 찾자 하면 외할아버지 땅에 찾아가야 하겠구나."

외할아버지 임정국 땅에 들어가니 외할아버지가 배석 자리를 내어주었다.

"어머니를 찾아 주세요."

애원하니

"아버지를 찾아가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산 도단땅에 주자선생이 너희 아버지이다."

"황금산 도단땅을 찾아가니 아버님이 말을 하되,"

"어머니를 찾자 하면 전생팔자를 그르쳐야 하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삼천천제석궁 깊은 궁에 갇혀 있으니 죽은 소 가족을 벗겨 복과 징을 마련하여 들어쿵쿵 내쿵쿵 드리울러치면 어머니를 찾을 것이다."

"그리 하겠습니다."

삼형제가 불도땅에 들어가 너사메너도령을 만나서 어머니 입던 단속곳 한 가랑이로 함께 나와 의형제를 맺었다. 굴미굴산 깊은 산으로 올라가 오동나무 첫 가지를 베어다가 우리나라 북통을 마련하고 둘째 도막은 끊어다가 동네복을 마련하고 셋째 도막은 병든 망아지 가죽 벗겨서 복을 마련하고 삼동막 살장고(장고) 울썩(징)을 마련하여 삼천천제석궁으로 들어갔다.

"설운 어머니, 깊은 궁에 들어가시거든 얇은 궁으로 살아옵서."

두 이레 열 나흘 다리 올려뒀더니 삼천천제석궁에서

"밤낮을 모르고 올라가고 올라오니 노가단풍아기씨를 궁 밖으로 내어라."

어머니를 살려다가 어주에 삼거리 탕자나무 유자나무 베어다가 처마 높게 천하대궐 지어놓고, 일천기덕 삼만제기 연양당궐 위로 올려 너사메너도령으로 일천기덕을 지키라 하고, 어머니는 천하대궐을 맡게 하였다. 동해바다 대장장이 아들 불러 상잔, 천문, 요령 등과 흰모래로 틀을 지어 일월삼명두를 만들어 연당 위로 올렸다.

양반 원수를 갚으려 삼시왕으로 올라갔다. 양반 잡는 칼은 일흔다섯 자 칼이고, 중인 잡는 칼은 서른 다섯 자 칼이고 하인 잡는 칼은 홀 다섯 자 칼을 마련하여, 일흔다섯 자 칼로 삼천 선비 양반의 원수를 갚았다.

출전 ; 현용준 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초공본풀이>